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

-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

허정선*

• 목 차 •

I. 서론

II. 1910년대의 참선포교

1.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
2. 대각사 창건
3. 저술 활동

III. 1920년대의 참선포교

1. 만일참선결사회
2. 대각사 선회 · 대각사 부인선회
3. 저술

IV. 결론

* 동국대학교 선학과 철학박사, 석종사 소속.

© 『大覺思想』 제40집 (2023년 12월), pp.55-95.

한글요약

본 연구는 1910년대와 1920년대 동안 白龍城(1864~1940) 선사의 화두 참선과 포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이 시기는 경성으로 이주한 백용성 선사가 그의 주요한 참선 포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 시기다. 그 중요한 활동으로는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의 설립, 대각사의 건립, 만일참선결사회의 창립, 대각교 부인선회의 개설, 다수의 禪 관련 저술 활동 등이 있다. 그의 참선 포교 활동은 마음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임제선의 원리를 전파하면서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이어갔다.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은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조동종 맹약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설립된 임제종 운동의 중심지로 해석될 수 있다. 원종은 근대 초기 한국의 첫 불교 종단이었으나, 종정 이회광은 일본이 우리 불교와 민족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조일불교 연합에 동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은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백용성 선사는 서울에서 '참선'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고, 화두 참선을 널리 포교했다.

이 논문은 또한 백용성 선사의 대각사상, 독립운동, 그리고 대중포교 활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백용성 선사가 참선을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25년 만일참선결사회를 창설했을 때 결사회의 임시사무소로 사용되고 일반인들을 위한 선회를 개설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등 한국 화두 참선 수행 보급 및 장소 등 한국 전통불교의 맥을 살리기 위해 활용된 위대한 성지 대각사 창건에 대해 다루었다.

만일참선결사회는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일본불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결사회를 추진한 또 다른 목적은 한국불교의 계율 파괴와 선의 몰락을 우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백용성 선사는 선과 율을 함께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안하며 마음을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임제선을 전파하며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가려고 했다.

부인선회는 백용성 선사의 참선 대중화 노력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그의 포교 활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된다. 부인선회의 설립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남성 중심의 참선 수행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부인선회는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활동에서 중요하며 의미 있는 부분으로 강조되며, 그의 사상과 이념을 실천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백용성 선사는 禪에 관련한 다수의 서적을 저술했으며, 이 논문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발간된 네 권의 그의 저술서를 소개하고 있다. 『歸源正宗』, 『佛門入教問答』, 『心造萬有論』과 『鮮漢文譯禪門撮要』에 부록으로 실린 『修心正路』이다. 이 네 권의 서적에서도 백용성 선사는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지식이며 독립운동가, 저술가, 불교 개혁가인 백용성 선사는 근대 한국사회 일반 대중들에게 화두 참선 수행법을 소개하며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백용성 선사가 평생에 걸쳐 수행했고 동시에 대중들에게 알리려 했던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 화두 참선의 뛰어남이 다시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백용성 선사, 화두 참선, 임제종중앙포교당, 대각사, 만인참선결사회, 부인선회, 저술 활동

I. 서론

白龍城(1864~1940) 선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에 활동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크게 노력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난 선사는 어릴 때부터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 14세에 남원의 교룡산성에 있는 德密庵에서 출가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16세에 해인사 극락암에서 재출가하였다. 백용성은 23세가 될 때까지 크게 네 번에 걸쳐 깨달음을 증득하였고, 화두참구로 大覺을 증득하고 교학 연찬으로 깨달음을 확인하였다.¹⁾

그 후 백용성은 1910년까지 참선 수행자로서 전국을 돌며 禪會를 개최하고 수행하였다. 1911년 이후에는 전통 한국불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화두 참선을 도심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사는 도심으로 나와 대중들에게 화두 참선 수행법을 안내해 준 최초의 보살이었다. 당시 도심에서의 포교 활동은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필요 과정이었다. 불교는 조선의 崇儒抑佛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중포교 활동이 무척 어려웠다. 당시 경성 도심 안에는 사찰이라고는 覺皇寺(현 조계사) 하나밖에 없었음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백용성 선사의 모든 포교 활동은 화두 참선을 통한 그의 깨달음에 기반해 가능했다. 본 논문은 1910년대와 1920년대 백용성 선사의 도심에서의 화두 참선 포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대와 1920년대는 백용성 선사가 1911년에 그 당시 수도 경성에 상경한 후 그의 중요한 참선 포교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만을 다룬 연구도 흔하지 않지만 특정 시기별로 살펴본 선사의 참

1) 이 논문은 허정선 박사학위 논문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2022)를 기반으로 연구했습니다.

선 포교 연구도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룬 1910년대와 1920년대 백용성 선사의 도심에서의 화두 참선 포교 활동에 대한 연구는 나름 그 의미가 있다. 이 시기 백용성 선사는 3·1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이후 독립운동에도 깊이 관여를 하였다. 1910년대보다 1920년에 저작이 많았던 이유는 다양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3·1 운동으로 감옥생활을 할 때 출소하면 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계획하였던 포교 관련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용성 선사에 대한 그 당시 지극한 존경심을 釋大隱의 「故白龍城大禪師의 追慕」²⁾라는 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조선불교 禪學界에서 善知識으로 일체의 추앙을 받는 이가 만이 기시지 마는 최근에와서는 宋滿空, 方漢岩, 申慧月, 白龍城 네 분이 사천왕과 가튼 존재를 가지고 기셨는데 맏해 전에 신혜월 스님이 열반하셔서 선학계에 적막한 소식을 전하드니 또 금년 사월일일에 백용성스님이 도라 가셨다. 그런데 백용성 스님 가지 세상에 기실 때에 고란이 만코 구설이 만든 분도 업지마는 또 백용성 스님과 가지 사후라도 업적을 마니 남겨노코 가신 분도 업다

이 추모글을 보면 선사가 남겨놓으신 업적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자는 그중에서도 그 당시 내노라하는 선지식중 유일하게 도심으로 나와 우리민족의 정신이 담긴 불교 그 중 선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참선포교를 하신 것을 손꼽아 들 수 있다고 본다.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 활동들에는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에서의 개교사장 취임, 조선 임제파 강구소 개설, 대각사 창건, 만일참선결사회 성립과 대각교 선회 개설 등이 있다. 또한 선사는 많은 저술 활동들을 하였는데 본 논문은 禪 관련 저술들 중 『歸源正宗』, 『佛門入教問答』, 『心造萬有

2) 釋大隱, 「故白龍城大禪師의 追慕」, 『佛敎時報』 59호(1940.6).

論』과 『수심정로(修心正路)』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1910년대의 참선포교

백용성 선사는 1911년에 그 당시 수도 경성에 상경한 후 참선 포교를 크게 선양하였다. 백용성 선사는 한국 근대 불교사에서 도심에서 대중들에게 화두 참선 포교 활동을 전개한 유일한 선지식이다. 선사는 참선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심에서 널리 알리며 불교의 기본 교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한국 전통 수행인 화두 참선을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며 참선을 대중화시켰다. 선사는 경성으로 올라와 姜씨라는 신도 집(종로)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석 달이 채 안 되어 신도의 수가 수백 명이 되자 다시 康永勻의 집(가회동, 종로)으로 옮겨 참선 법규를 세우며 참선을 널리 알렸다. 이것이 참선 포교를 위해서 도회지에 올라온 백용성 포교활동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12년 통도사와 범어사 그리고 지리산의 각 사찰들이 연합하여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경성 대사동(현 인사동)에 설립한다. 그리고 백용성은 포교를 담당하는 중앙포교당의 師長으로 피임된다. 그 후 포교한 지 3년 만에 신도 수는 3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경성에는 백용성의 눈부신 참선포교 활동과 함께 처음으로 ‘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참선’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며 참선을 가르치며 짧은 기간 안에 신도 수가 3천여 명이 되었다는 것은 백용성의 포교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으며 성공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백용성 선사의 도심 참선 포교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백용성 선사는 상경 후 불교 즉 참선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도심에서의 포교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보고자 한다. 먼저, 타 종교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이 당시 불교는 대중 포교 활동

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때 선사가 도심에서의 포교 활동을 개시한 것은 당시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분석된다. 둘째, 임제선종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전통 불교를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두 참선 수행법을 대중들에게 보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심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불교를 홍보하고 동시에 일본불교에 맞서 우리의 불교 정통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된다. 셋째,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교의 기본 교리를 도심 속의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불교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다.

백용성 선사는 도시는 모든 제도와 문화의 중심지이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포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그 결과, 그의 참선 포교 활동은 도심에서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개교사장 취임 및 대각사 창건 등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그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한국 전통불교, 화두 참선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사는 한국 근대불교 역사에 우리의 전통 불교 수행법인 화두 참선법을 끝까지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

1911년 백용성 선사는 47세의 나이로 경성으로 올라와서 서울의 대사동에 위치한 그의 신도인姜씨의 집(종로)과 가회동의康永均 집에서 禪會를 주최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화두참선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 기간은 3개월로 짧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백용성은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의 포교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당시에는 최초로 민가 포교당을 설립하게 되었

다.³⁾ 이와같이 백용성 선사는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불교 포교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로 이는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 및 朝鮮禪宗中央布敎堂의 開敎師長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이후에는 獨自로 朝鮮臨濟派講究所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대각사를 건립하였다.⁴⁾

臨濟宗中央布敎堂 및 朝鮮禪宗中央布敎堂의 설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1902년 한국 불교계는 국내 사찰 현행세칙을 발표하고, 1908년에는 圓宗이라는 종단을 창립했다. 이때 이회광(해인사)이 종정으로 선출되었다. 그 무렵 인재 양성을 위해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종정 이회광은 일본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원종 고문으로 추대했다. 다케다는 1895년 을미사변에 가담하여 구금된 후 일본으로 송치되어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원종의 고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과 함께 사람들은 원종에 거부감을 가졌다.

1910년, 원종과 일본 조동종은 ‘연합맹약 7개 조항’을 체결했다. 이것이 유명한 ‘연합맹약’이다. 이 연합 7개 조항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조동종은 원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연합맹약 7개 조항’은 원종의 모든 운영 및 활동에 조동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개조의 내용에 따르면 원종은 조동종에 원종 측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원종과 조동종이 맺은 7개조는 모양만 연합이었지 원종을 조동종에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연합맹약’은 매종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1910년 12월쯤에 우연히 통도사에 전해져 불교계에 알려졌다. 당시 의식 있는 승려들은 조선불교의 전통은 임제종이라고 생각했고, 조동종과

3) 한태식(보광), 「백용성 스님의 대중포교활동」, 『大覺思想』 6, 대각사상연구원, 2006, p.59.

4) 문선희(정수), 「禪修行의 대중화에 대한 一考」, 『大覺思想』 13, 대각사상연구원, 2010, p.65.

의 맹약은 종조를 팔고 조상을 바꾸는 ‘매종역조’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이러한 매국 행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한용운, 박한영, 진진응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찰들에 통지문을 보내어 1911년 1월에 송광사에서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임제종을 창설하였다.

원중은 개항 이후 근대 최초의 불교 종단이었다. 그러나 이회광 증정은 일본이 우리 불교계를 장악하고 민족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일불교 연합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이에 분개한 남쪽에서는 임제종이 조직되었고 결과적으로 불교계는 남쪽의 임제종과 북쪽의 원중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범어사와 통도사 등의 지원으로 임제종 중앙포교당은 1912년 5월 26일에 경성부 중부 사동 28통 6호에 위치한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을 설립하였으며 백용성 선사는 開敎師長으로 취임했다. 이 개교식은 당시의 『매일신보』에 상세히 보도되었다.⁵⁾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의 개교식에서 한용운은 주무자로 나서 임제종 창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백용성 선사는 개교사장으로 포교의 책임자로 설교를 하였다.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대중이 참석했으며 백용성 선사의 설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⁶⁾ 그러나 1912년 5월에 설립된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은 일제의 강압으로 6월에

5) 白龍城著, 『歸源正宗』 卷上(1913년 6월 10일 간행)에 中央布敎所의 주소가 中部寺洞28統6戶로 나온다. 白龍城이 지은 『佛門入敎問答』(1913년 10월 27일 간행)의 관련에도 朝鮮禪宗中央布敎堂의 주소가 京城中部寺洞28統6戶로 나온다.

6) “임의 개진한 바와 같이 제작일 오후 삼시부터 중부 사동에 있는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에서 성대한 개교식을 실행하였다. 韓龍雲화상의 취지 설명 白龍城화상의 교리 설명 신사 鄭雲復, 李能和 兩氏의 연설 호동학교생도 일동의 참가 음악대의 주악 등이 있었고 당일에 입교한 남녀가 팔백명에 달하였으며, 구경꾼이 일천삼백명이 되어 空前絶後의 성황을 일우었다더라.” 『朝鮮佛敎月報』 5호(1912.8), 「雜報」, 「開敎式場」, 『매일신보』 1912.5.26, 「中央布敎堂開敎式」.

명칭을 조선선종중앙포교당으로 변경하게 된다. 백용성 선사는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에서 금강반야 법회를 개최하고 법문을 주도하며 적극적인 선 포교 활동을 해 나갔다. 그의 서울에서의 포교 활동은 한국 불교계 신도들뿐만 아니라 고위관료들과 심지어는 일본인들까지도 인정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일부 일본인 식민주의자들도 백용성 선사를 ‘선사’, ‘포교사장’, ‘대설법가’로 호칭하며 그의 활동을 찬양했다.⁷⁾

1915년 이후에 백용성 선사는 서울 종로의 장사동에 朝鮮臨濟派講究所를 열고 독자적으로 포교 및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다.⁸⁾ 선사의 모든 포교 활동은 극단적인 선리가 마음을 깨우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임제선⁹⁾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백용성 선사는 1915년 『매일신보』에 「吾宗은 臨濟禪宗」이라는 글에서 조선불교는 임제종을 잇는 선불교임을 단언했다.

原夫淸平이如堯天舜風호야海晏河淸이라空山에水流花開호고家々에純樂無爲러니最初佛威音王이首唱道化호시니可謂太平世界에起干戈也 | 로다땀不塗紅紛也風流이나라自威音王佛出世以後로滔々敎海가如雲起長空호고重々禪林이如淸風明月호야傳受無傳受之名과佛法世法之名이燦然興於世호시니可謂亂世之奸雄이며治世之良將이로다會麼이搽脂着紛也無妨이나라從此로佛々이授々호며祖々相傳라及於釋迦佛호야以正法眼藏涅槃妙나나라第三句는括盡一藏敬海호야說佛說法說凡說聖說理說事等無邊法門호나니得之於心者는出生死苦海어니와擬之於心議之於口者는自己生死苦海도未濟온況乎他人乎어此三句는臨濟宗之綱領이니一切法門이不出乎此臨濟三句이니是臨濟宗風之由也이라此宗旨를代代々相傳호사至臨濟下十八代石屋禪師호야高麗國太古禪師가入支那明用霞霧山호사親見石屋淸琪禪師호사得臨濟宗旨호시니是海東臨濟宗初也니

7)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p.66.

8) 「禪宗臨濟派講究所」, 『每日申報』 1915.5.14, p.1.

9) 김명호, 「임제종(臨濟宗)의 선풍(禪風) 고찰」, 『불교학보』 7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6, p.117.

라此臨濟宗旨를傳之幻庵호고庵이傳之龜谷而至于清虛休靜禪師호아臨濟宗風이大振이라出四派호니逍遙曰鞭羊曰無染曰松雲 | 라至今釋迦下七十五代오臨濟下三十八代也 | 라禪有二種호니一日敎外別傳이니釋迦所傳三處傳心臨濟正法眼藏是오二日觀禪이니敎中所謂靜幻寂三觀과空假三觀等이는이니라臨濟는得諸佛之骨髓호사盡底無遺也 | 니余는謂朝鮮法脉相傳이唯臨濟而已라호노라¹⁰⁾ (迦由沙門 白龍城)

이처럼 백용성 선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한국불교 종파에 대한 답변에서도 우리의 전통불교는 선종 그중에서도 임제선풍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¹¹⁾ 백용성 선사는 임제파강구소에서 참선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임제선을 가르쳤다. 백용성의 강의 내용과 강연 일정은 『매일신보』에 보도되었다.¹²⁾ 백용성 선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의 전통선인 임제선의 법맥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선사는 화두를 타파하여 마음을 깨치고 중요한 역할을 한 몇 안 되는 선사 중 한 명이였다. 이러한 선사가 임제종이라는 이름하에 경성에서 화두 참선포교 활동을 벌인 것은 왜색 불교에 맞서 우리 전통불교를 지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선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왜색 불교에 대항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대각사 창건

백용성 선사의 1910년대 포교활동으로 1916년에 서울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창건된 대각사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대각사는 백용성 선사가 민족독립운동을 벌인 성지이며 다량의 참선포교

10) 「吾宗은 臨濟禪宗」, 『매일신보』 1915.7.7, p.1.

11) 「용성선사어록」,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349-350.

12) 한동민, 앞의 책, p.70.

과 관련된 불교 저서를 쓰고 번역하며 대각교를 선언하는 등 불교개혁 운동을 추진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 대각사를 중앙본부로 하여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수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백용성이 敎外別傳인 참선을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후 만일참선결사회를 창설할 때 대각사는 임시사무소로 사용되고 일반인들을 위한 선회를 개설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등 한국 화두 참선 수행 장소와 보급 등 한국 전통불교의 맥을 살리기 위해 활용된 위대한 성지였기 때문이다. 백용성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강제 점령 시기에 한국에서 활동한 불교의 화두 참선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국권 상실 시기에 한국불교 참선의 부흥과 민족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동학 민란과 유교의 쇠퇴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불교 역시 조선왕조 초기부터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그 결과, 불교는 겨우 법통을 이어가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11년 백용성 선사는 전국의 여러 사찰과 선원에서 수행한 뒤 한국 전통 불교인 참선의 부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 후 선사는 1912년 현재 인사동에 해당하는 사동에 개설된 임제종중앙포교당에 개교사장으로¹³⁾ 그 후 3년 뒤인 1915년에는 서울 종로의 장사동에 한국 불교의 전통이 임제 계통임을 천명하며 조선임제파강구소를 설립하는 등 참선포교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처럼 선사는 대각사 창건 이전에 창건을 위한 많은 활동을 도심안 경성에서 추진하였다. 이렇듯 선사가 1911년 상경한 후 그의 주요 활동들을 보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참선포교를 시작하며 임제종중앙포교당을 개설하고 임제파강구소를 설립하면서 한국불교의 전통은 일본의 조동종이 아닌 공극적인 선리는 마음을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임제종에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각사 창

13) 「중앙포교당 개교식장, 포교당의 성황」, 『매일신보』, 1912.5.26.

건 속에는 자연히 참선 포교라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 대항하며 우리의 민족정신을 지키고 참선 포교 등 우리의 전통불교를 대중화하는데 거점 역할을 한 대각사의 창건 시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백용성의 문도 측은 1911년에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조선총독부 촉탁인 촌산지순이 1935년에 저술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는 1914년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었다. 한편, 1916년 설은 백용성이 3·1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을 때 대각사 주소인 봉익동 1번지에 53세 때부터 ‘단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이 기록에 더욱 무게를 두어 한보광 스님은 그의 글 「백용성스님의 중반기 생애」에서 대각사 창건 시기를 기존의 1911년에서 1916년으로 주장하였다.¹⁴⁾ 김광식 역시 1916년부터 백용성이 현재의 대각사 모태인 봉익동 1번지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백용성 본인이 직접 구술한 내용인 53세 시절인 1916년을 대각사의 창건 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각사는 창건 이후 참선 포교뿐만 아니라 백용성 선사가 추진한 역경사업, 저술사업, 민족운동, 대중포교 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대각사는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많은 지사들이 다녀간 곳이자 백용성 선사의 대각교 운동이 구현된 중심지였다. 한국 불교 개혁 운동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자 삼장역회와 함께 백용성 선사의 많은 참선 포교와 관련된 번역서와 저술이 발간된 곳이기도 하다.¹⁵⁾ 그러나 대각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상태로, 이는 자료 부족 때문일 수 있다.¹⁶⁾

14)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각사상』 2, 대각사상연구원, 1999, p.35.

15) 김광식의 연구에 따르면 대각사 창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광사업도 벌였다. (김광식, 「백용성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2, p.74.)

16) 대각사를 중심으로 한 백용성의 포교활동은 흔히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1911년 백용성이 상경한 시기부터 3·1 독립운동 민족대

백용성 선사는 주로 대각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불교인 참선의 발전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 결과 대각사는 한국불교 개혁 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민족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대각사는 백용성 선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각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는 대각사와 백용성 선사의 업적을 더욱 조명하고 이를 통해 대각사는 한국불교와 민족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저술 활동

1910년대 백용성 저술로는 1913년에 조선선종중앙포교당에서 발간된 『歸源正宗』과 『佛門入教問答』이 있다. 먼저 『歸源正宗』에서 선사는 지리산 칠불암 칠불선원의 종주로 있을 때 유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 및 그들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교의 특징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1910년 5월에 저술을 시작하여 두 달 만인 7월에 마쳤는데 책은 한 권이지만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 발문이 있다. 특히 당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불교를 맹렬하게 공격하자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반론을 펼치고 여러 다양한 불교 관련 질

표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1921년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21년 백용성이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시기로, 이 해에 삼장역회를 출법시켰다. 이 시기는 대각사의 소유권이 범어사로 인계되는 1936년 전체인 1935년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백용성은 대각사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각교당 선회 및 대각교 부인선회를 개설하는 등 불교를 대중화하며 민족독립 운동에 기여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936년부터 백용성이 입적하는 1940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백용성은 불교 개혁 운동과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갔으며, 그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높았다. (허정선, 「백용성과 대각사 연구」, 『대각사상』 34, 대각사상연구원, 2020, pp.70-71.)

문에 답변하는 최초의 책이다. 여기서 선사는 불교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두참선 수행으로 이끄는 선사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발문을 쓴 김재희 거사는 발문에서 본원으로 돌아가는 종지를 밝게 드러내고 선종의 문과 길을 곧바로 지시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¹⁷⁾

또한 『佛門入教問答』은 백용성 선사가 1911년 상경하여 도십포교에 나섰을 때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소책자이다. 본고는 백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 포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백용성 선사가 상경할 무렵에는 우리의 전통 한국불교가 일본의 조동종에 대항하며 임제종 선풍임을 알리는 ‘임제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백용성 선사는 이 두 책 곳곳에 화두 참선의 궁극의 목표인 ‘마음 깨침’을 위하여 본래 성품을 곳곳에 강조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선리는 마음을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임제선 계통임을 명확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17) 「歸源正宗」,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p.674, “昔在歲辛未余遊大磨山過中聖菴菴有四座佛像禮拜畢因寄淨室修數息至七日而頓覺六根清淨又幾日夢方安坐數息而庵中四佛由戶注視者良久自是淨慧發于詩文纖毫妍媸猶如燭照因思佛言譬如磨鏡垢盡明現良是遂欲遊方外求善知識叩三乘門路而世故多端有志未就者三十餘年于茲矣今年春信士寶月自嶺南海印寺歸以歸源正宗上下卷示余即龍城大師所著而發明返本還源之旨直指禪宗門路如示諸掌眞昏衢之燭迷海之針也既又得見大師快償宿願顧此會遇豈非三十年前中聖庵修業之所報也夫教有方內方外之別孔子老氏之教豈非天下萬世之道也然而在天地範圍之內故生死輪回惟天所命此方內之道也釋氏之教出天地範圍之外故廣大妙用諸天不違此方外之道也嗚呼一切衆生皆有佛性認得則可以超生死於三界迷失則不免受輪迴於六途故八億四千萬卷經期使衆生認得此性而已而修行成覺又豈易言哉一念之差便墮魔障若不得善知識指示門路則住法自縛無異彈紙之蜂認妄爲眞終歸蒸沙之飯而已世之有志禪宗而不得門路者多矣惟我同志刊布此書以廣大師津梁之願力是望。”

<표 1> 1910년대 백용성 저술서

시기	대상	발행처
1913. 6.	歸源正宗	조선선종중앙포교당
1913. 10.	佛門入教問答	조선선종중앙포교당

<표 2> 『歸源正宗』과 『佛門入教問答』에서 본래성품을 강조한 부분

歸源正宗(下: 31-65)	佛門入教問答
43. 지옥도 마음이 짓는 것 (地獄原因不出唯心所作)	불·법·승의 뜻은 무엇인가?
51. 본원으로 돌아감을 밝힘 (明辨返本還源)	지금 각종 종교가 흥한데 어찌 그 교리를 따르지 않고 불교에 돌아 오고자 하는가?
58. 모든 것을 마음으로 회통 (會通歸心釋)	누구든지 단지 불교만 믿으면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이 되는가?
60. 선종의 핵심을 밝힘 (略明教外禪宗)	
61. 간화법의 핵심을 밝힘 (略明看話法)	
62. 간화의 절요를 인용 (略引看話節要)	
63. 궁극의 과보를 변론하여 밝힘 (辨明究竟結果)	
64. 치우침과 원만함에 대한 변론 (辨偏圓)	
65. 선종 오가 종풍을 변론 (辨諸家解異)	

<표 2>에 나타난 두 책의 각 항목에서 백용성 선사는 대중에게 자신의 마음, 본래 성품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선종의 전통은 ‘以心傳心’을 강조한다. 그래서 臨濟禪도 당연히 마음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듯 화두 타파를 통해 깨달음을

얼은 백용성 선사는 참선 관련 서적들을 저술하여 발간했다. 이는 참선 포교를 위한 이론 제시 및 선포교 대중화를 위한 선사의 끊임없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III. 1920년대의 참선 포교

1920년대 백용성 선사는 역경사업과 저술사업, 저항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 선사는 40대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특히 3·1 독립선언으로 감옥에 있을 때 생활과 밀접된 기독교인들의 포교활동 방법에 크게 자극을 받아 출소한 후에 저술작업을 열심히 하고, 한편으로 찬불가를 만드는 등 생활불교를 통한 포교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 중에는 참선 포교라 할 수 있는 만일참선결사회와 대각사 대각교당에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禪會 개설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또한 선사는 1927년 대각교를 선포하는데 이것은 일본 왜색 불교로 물든 한국 전통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여기서는 1920년대 백용성 선사가 개최한 만일참선결사회와 대각교 선회 특히 부인선회를 통해 선사의 대표적인 참선포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만일참선결사회

1925년 6월부터 경기도 양주군 도봉산 망월사에서 백용성은 만일참선결사회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로 명명되었다. 백용성은 ‘萬日參禪結社會創立記’에서 역경사업으로 인해 신경쇠약증에 걸렸으나, 이를 극복하고 ‘敎外別傳’ 참선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결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¹⁸⁾ 백용성 선사는 1910년대에 임제종 중앙포교당이나 임제파강구소를 운영하면서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사는 참선을 최고의 수행 방법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따라서 역경사업을 중단한 것은 원래 선사가 추구했던 참선 수행으로의 회귀였다. 이 결사를 추진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불교의 규율 파괴와 선의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¹⁹⁾ 이러한 상황은 일본불교의 전파와 승려들의 타락으로 인한 막행과 막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백용성은 자신의 기반이었던 봉익동 2번지 대각교당을 결사회의 임시사무소로 정하고, 만일참선결사회의 본거지를 망월사로 결정했다. 이 결사회의 취지를 『불교』 14호(1925.8)에 발표함으로써 불교계에 널리 알렸다. 규칙과 지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엄격한 수행 생활을 요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용성 선사는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會’를 통해 우리 전통불교의 핵심인 화두 참선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한다. 그로 인해 백용성 선사는 당시 왜색 불교로부터 훼손된 한국 불교의 순수한 수행 방식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會’의 規則·入會禪衆注意事項을 통해 당시 결사회가 참선을 통해 심성을 깨우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午後不食이나 결사기간 동안 洞口不出을 단행하고 四分律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백용성 선사의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살리려는 의지가 잘 보여진다. 또한 규정을 어기는 자에게는 처벌을 부과하며 술과 육류를 먹는 행위는 깨달음과 무관하다고 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대중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일참

18) 「용성선사어록」,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p.352, “余衰老眼昏에不堪譯經이언만但恐衆生의眼目福田이沒於世間일가하야金剛楞嚴圓覺等諸經을譯之解之하며又心造萬有論等을著述하야二萬餘卷을布於世間이나余神經衰弱이間發故로不得已譯經을廢止하고精修別傳活句參禪萬日結社會를創設하니時年이六十二歲러라.”

19)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p.110.

선결사회는 이러한 엄격하고 철저한 淸規를 마련했다. 이는 참가자들의 각별한 각오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불교의 전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결사회의 규칙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선사가 의도하였던 만일참선결사회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강한 결의와 의지가 명시되어 있다.²⁰⁾ 선사가 주도한 만일참선결사회는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되찾고, 그 선사상의 맥이 임제종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불교』 18호(1925.10)에서 소개된 만일참선결사회 기사 제목인 ‘조선에 임제 전문도량 생기다’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백용성 선사는 여러 준비를 마치고 참가 대중을 모집하여 1925년 10월 초에 결사회를 준비를 마쳤다.²¹⁾ 그러나 결사회는 망월사에서 통도사의 말사인 내원암으로 이전하게 된다.

白龍城禪師의 主唱下에 京畿道 楊州郡 道峰山 望月寺內에 活句參禪萬日 結社會를 開催함은 本誌에도 已報한 바이나 道峰山의 森林은 保安林에 編入됨으로 禪衆은 多數하고 燃料는 不足하여 到底히 三年 一期를 充滿하기 難하므로 不得已 慶南 梁山郡 通度寺 內院庵으로 移住하였스며 兼하여 三藏譯會의 事業도 그리 移轉하여 華嚴經 翻譯에 着手한다더라(梁山)²²⁾

『불교』지에 따르면 도봉산의 숲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도에 위치한 망월사에서 경남의 통도사로 결사회의 장소가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이유는 많은 대중들이 쓸 땀감 등 연료 부족 때문이었다.

그 당시 통도사의 주지였던 송설우 스님이 많은 지원을 했다.²³⁾ 통

20)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51.

21) 위의 책, p.152.

22) 「佛敎消息 ; 活句參禪會의 移轉」, 『佛敎』 23, 佛敎社, 1926, p.58.

도사에서도 후원을 받았지만 백용성 선사가 부담해야 했던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한 것 같았다. 1927년에 백용성 선사가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生은 今年度에 內院에 對하여 去年度 寺中責務 所用된 것이 七百圓이 禪客의 所用 外에 無名色하게 所用되었고 今年度에 財團條 七百圓給하고 又禪院에 不足이 된다 하여서 四百圓을 給하였는데 住持가 絶對로 辭免하 것다고 하여서 萬端개유하여도 都不聽之하니 是可歎也라 生은 今年에 禪院에 對한 責任은 다하였고 更히 加算하여 줄 수는 無한 事라 … 중략 … 禪院首座는 無一人可合者니 時耶緣耶 且奈何오 吾恐佛法이 自弊일가 함네 다²⁴⁾

백용성 선사가 결사회를 운영하면서 마주한 내원암의 재정적 고충과 선원 수좌들로부터 겪는 마음의 고뇌를 깊이 느낄 수 있다.

世上이 一도 信할 것이 無하되다 生은 精誠을 다하여 한 일이온대 三年 洞口不出 午後不食 等 一切規則을 皆自破壞하고 我的 指揮는 一毫도 不遵 하니 我的 信心도 亦懈怠하게 되었심네다²⁵⁾

23) 즉 통도사 부속암자였던 내원암과 그 밖에도 네 곳의 부속 암자, 즉 성불암·금봉암·안적암·노전을 전부 선원으로 만들면서 내원암 주실이자 만일참선결사회를 주도하던 백용성의 관하에 그 암자들을 예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55.)

24) “생(용성)은 금년도에 내원에 대하여 작년도에 사중의 빛으로 쓴 것 중에 7백 원이 선객의 소용 외에 명분 없이 소용되었기에 금년도의 재단조로 7백원을 주었고 또 선원에서 부족된다 하여서 4백 원을 주었는데 주지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여서 여러 번 권유해 보았으나 도무지 듣질 않으니 탄식할 노릇입니다. 생은 금년에 선원에 대한 책임은 다하였고 다시 가산하여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 더구나 선원 수좌(首座)는 한 사람도 합당한 이가 없으니 시절 탓인가 인연 탓인가 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불법이 스스로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백용성,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7)」, 백용성 대중사 총서 7, pp.265-267.)

25) 백용성,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7)」, 백용성 대중사 총서 7, 대한불교

또한 위의 내용에서는 결사회에 참여한 수좌들이 온갖 규칙을 어기고 백용성 선사가 정해놓은 청규를 무시하는 등 선사는 ‘불법 멸망 시대에 태어났다고’까지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수좌들의 규칙 불이행으로 인한 큰 실망이 더해져, 만일참선결사회는 1927년 8월 자진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살펴본 결사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결사회는 화두 참선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후불식이나 결사기간에 동구불출을 단행하고 사분율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왜색불교에 맞서 계율을 지켜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선사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었다.

김광식은 「만일참선결사회의 전개와 성격」에서 결사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로, 결사회는 적극적으로 간화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고, 둘째로, 강렬한 계율 수호 의식이 드러났으며 셋째로, 수행 풍토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넷째로, 식민지 불교에 대한 반대 의지가 나타났으며 다섯째로, 선 결사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마지막으로, 백용성 선사의 불교 사상에서 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⁶⁾ 이것은 논자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백용성 선사의 생애에 걸쳐 구현되고 있는 ‘참선불교’ 실행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봉 스님께 보낸 편지를 통해 결사 진행 중 느낀 백용성 선사의 실망감과 규칙들을 어기는 수좌 스님들에 대한 좌절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용성 선사는 만일참선결사의 진행을 ‘말법의 불구덩이 속에서 연꽃을 피운 것’으로 비유하며 결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선에 임제 전문도량 생기다’라는 구문처럼 한국 전통 불교를 부활시키기 위해 참선만을 엄밀히 수행하는 결사회를 조직했던

조계종 대각회, 2016, p.266.

26) 김광식, 「만일참선결사회의 전개와 성격」, 『大覺思想』 27, 대각사상연구원, 2017, pp.185-186.

것이다. 이 사실은 일제의 암흑시대 뿐만 아니라 승유억불 정책이 시작된 조선시대를 포함한 우리 불교사에서 화두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획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사회는 해방 이후 봉암사 결사의 연장선으로 이어졌다.²⁷⁾ 그리고 용성문도의 역사의식 자료로 활용되었다.²⁸⁾ 여기에서 결사회의 역사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다.

2. 대각사 선회 · 대각사 부인선회²⁹⁾

논자는 백용성 선사가 대각사 선회와 부인선회를 개설하기 전에 도심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인선회 개설의 타당성을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선사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도심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화두 참선불교를 실현하기 위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온 것이라고 본다. 1911년 선사는 상경하여 종로의 ‘姜씨’라는 신도의 집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신도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자, 백용성은 다시 종로 인사동의 ‘康永勻’의 집으로 옮겨갔다. 거기서 백용성은 참선 법규를 수립하고 참선을 널리 알리는 데에 힘썼다. 비록 신도의 집이었지만

27) 김호성, 「봉암사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 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p.131-134.

28) 덕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의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631-635.

29) 「宗報 ; 大覺教堂의 禪會」, 『佛敎』 62호, 佛敎社, 1929, pp.76-77, “市內 鳳翼洞 二番地 大覺教堂에서는 去 四月부터 七月까지 夏安居 禪會를 開하고 多數한 信者와 가치 坐禪을 行한다는데 그 安居 修禪은 左와 如하다더라.

午前部 四時 起寢, 五時 禮佛入禪, 六時 放禪, 七時 進供, 十時 入禪, 十一時 放禪 十二時 供養

午後部 三時 入禪, 四時 放禪, 五時 說敎, 六時 夕供, 八時 禮佛入禪, 九時 放禪就寢”

이미 禪會를 시작한 것이다. 선회는 참선을 위한 모임인데 백용성 선사가 1929년 대각사에서 禪會와 부인선회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선사는 1927년 대각교를 선포하고 2년 후인 1929년 대각사에 禪會를 개설한다. 일반적으로 선회에서는 여신도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백용성 선사가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참선 수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참선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부인선회를 대각사에 개설하고 참선 수행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매우 돋보이며 백용성 선사의 개혁적이고 참신한 참선 포교 활동의 핵심적인 측면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1934년부터 1938년까지의 기록된 대각교 본부 부인선원 방명부이다.³⁰⁾

대각사 안거 여성 참여자 명단

芳名簿³¹⁾

覺紀二九六二年 癸酉 冬安居 始
大覺教本部 婦人 修道院

방합록

각기 이천구백육십일연 갑술
대각교중앙본부부인수도원

갑술년 하안거

관중 신영우	충남 예산 보덕사
박요연	양주군 원통사
오대보화	안국동 별궁
리지혜월	경성 종노 오정목
윤광명월	황금정

30) 이 자료는 부인선회의 남아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1930년대이지만 이 장에서 밝힌다.

31) 「대각교본부 부인선원 방명부(1934)」, 백용성 대중사 총서』 7,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2016, pp.440-448.

최무성화	성북동
빅백연화	청진동
김선심행	사동
김광명화	운이동
공사 이상운	강화군 백년사
화주 최선헌명	안국동 별궁
갑술연 동안거	
관중 오디보화	안국동 별궁
리무열광명	장사동
리보월화	안국동 별궁
백백연화	청진동
한법성월	경성부 낙산
윤광명월	황금정
리지혜월	종노 오정목
박심우바	관동
최무성화	성북동
공사 이상운	강화군 백년사
화주 최선헌명	안국동 별궁
을희년 하안거	
관중 홍지득	충남도 공주군 마곡사
오디보화	안국동 별궁
리무열광명	장사동
박심우바	관동
한법성월	낙산
최무성화	성북동
하무궁화	경성부 녹천동
한덕성화	인사동
공사 박승삼	경남 울산군 석남사
화주 최선헌명	안국 별궁

원문보기

을해년 동안거

관중 도덕	례산군 정혜사
선덕 리무열광명	장사동
오대보화	안국동 별궁
한법성월	낙산
박심우바	관동
서원명화	안국동 별궁
공사 민기현	한남동
화주 최선광명	안국동 별궁
정축년 하안거	
입승 오대보화	봉익정 사변지
리무열광명	
최무성화	
박심우바	
박우향화	
화주 최선광명	
정축년 동안거	
입승 비구니	명성
	선원
	재민
청신녀	지극낙행
	오대보화
	염복덕화
	리묘련화
	한법성월
	고극낙심
	리무열광명
	강청정심
	리진실상
	박심우바
	김자비월
화주 최선광명	
무인년 하안거	

입승 심성길	경북 문경군 대승사
오덕보화	봉익정
한법성월	낙산
리무열광명	가회정
윤광명월	현저정
고극낙심	락원정
박심우바	관동
화주 최선광명	안국정
무인년 동안거	
종주 룡성대화상	
입승 홍민수좌	해인사
선덕 리씨무열광명	가회정
오씨대보화	봉익정
한씨법성월	동순정
서씨원명화	별궁
고씨극락심	락원정
리씨공월심	권농정
부전 재민수좌	심원사
간병 리씨동진화	별궁
지객 마씨청정월	당주정
만정수좌	정혜사
공사 두성대사	쌍계사
원감 회암화상	본원
화주 최씨선광명	별궁

1934년부터 1938년까지의 방함록 기록에 따르면, 대각교 부인선원이 진행한 안거 참가자의 인원은 매번 약 6명에서 15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1932년에 선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선원 및 수행자 통계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여기에서도 안거 참여자 수는 평균적으로 약 10명 내외였다.³²⁾ 선학원 부인선원의 경우에도 1934년부터 1938년까지의 기간

32) 「조선불교계의 선원과 납자수의 통계」, 『禪苑』 3, 1932, pp.72-73.

동안 안거에 참여한 평균 인원은 약 5명 내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³⁾ 이는 앞의 방함록 기록 및 선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선원 및 수행자 통계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무주에 위치한 향산사에서조차 선사가 지도하던 부인선방이 있었는데³⁴⁾ 이는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활동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부인선회는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 노력에서 독특한 성과로 여겨진다. 부인선회의 설립은 그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참선 포교 활동의 정수로 생각된다. 이것은 유교 사회에서 차별을 받던 여성들이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 중심의 참선 수행법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인선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한국불교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결국 여성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다.

3. 저술

백용성 선사는 선과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하고 번역했다. 1920년대는 1910년대에 비해 더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출간되었는데 이는 선사께서 서울로 상경하고 대각사를 창건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등에 시간을 들인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는 감옥생활 중 결심하였던 본격적인 대중포교의 일환으로 저술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3) 『安偈芳啣錄』, 中央禪院.

34) 「용성스님이 부인선방 지도하던 대중 포교도량, 무주 향산사」, 『불교저널』 33. p.17.

<표 3> 1920년대 백용성 선사 저술·번역서

시기	대상
1921. 9.(저술)	心造萬有論 제1판 心造萬有論 제2판
1922.9. (저술)	八相錄
1921. 5.(번역)	梵網經演義
1922. 1.(번역)	新譯大藏經 金剛經講義
1922. 1.(번역)	新譯大藏 金剛般若波羅密經
1922. 3.(번역)	首楞嚴經鮮韓演義(上)
1922. 7.(번역)	首楞嚴經鮮韓演義(下)
1922. 9.(번역)	覺頂心觀音正士摠持經
1922. 9.(번역)	金毗羅童子威德經
1924. 6.(번역)	鮮漢文譯禪門撮要 부록:수심정로(修心正路)
1924. 7.(번역)	大方廣圓覺經
1926. 4.(번역)	詳譯科解 金剛經
1927. 11.(번역)	조선글 화엄경華嚴經

그 중 『心造萬有論』, 『수심정로(修心正路)』, 『각해일륜(覺海日輪)』과 『晴空圓日』은 백용성 선사의 선사상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1920년대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논자는 1921년에 선사가 저술한 『心造萬有論』과 백용성 선사가 1924년에 삼장역회에서 출판한 『鮮漢文譯禪門撮要』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수심정로(修心正路)』를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心造萬有論』에서 백용성 선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환영’이며 모두 완벽한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한다. 백용성 선사는 평생을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청정으로 돌아가 마음을 깨치신 스님이다. 이 책을 통하여 헛된 바깥에 눈을 돌려 그것에 허덕이지 말고 오로지 화두 참구하여 우리의 자성을 보고 깨달으라는 선사의 우리

를 향한 깊은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心造萬有論』의 서문에서 그와 같은 선사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 『心造萬有論』구성³⁵⁾

『心造萬有論』
『心造萬有論』서문
I. 世界起始
II. 人生關된原因이識임을辨함
III. 衆生起始
IV. 攄明原因

唯識者는何오是心이本然淸淨커늘云何로山河大地를發生하나뇨? 天地萬有와情與無情이唯識으로幻變함이니人이夢에種種物像을見하거든夢見者가皆是夢識의所變이라또한外로來한者가아니로다夢所變과如하야現今天地萬物情與無情이唯識으로現出함을覺悟할지로다.³⁶⁾

서문에는 천지만물과 유정 무정이 오직 마음에 의해 그 생각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며 오직 마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백용성 선사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世人이物質의學으로種種說明이有하나我는種種說이다唯心の自造임으로知하노라. 世人이但所見所聞相에執하야人生의堅關됨이唯識임을不知하는故로第一卷에識數의相을略辨하야世人으로하야금心意識에過患을知케하고次下는佛之大慈方便으로衆生の識心關을打破하고塵堆裡에埋却하얏든無價寶藏을得하야不生不滅하는無窮妙樂을受케하며又未來劫이盡도록一切衆生으로하야금다無上正眞의道를得케하야佛道를同成케하기를願力하고此論을編述하노라. 金井沙門 龍城堂 白相奎³⁷⁾

35) 「心造萬有論」,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161-292.

36) 위의 책, pp.161-162.

『心造萬有論』 서문에서 백용성 선사는 세상 사람들은 물리학을 통해 다양한 설명을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본 것과 들은 것에 집착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사는 제1권에서 識을 범수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여 사람들이 마음의 허물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생의 心·意·識을 극복하여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을 얻어 불생불멸한 무궁한 쾌락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을 깨친 선사가 우리 중생이 참선 수행을 통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인 자성을 깨달아 무궁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최고의 바른 진리의 도를 얻어 함께 부처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간절한 원력을 『心造萬有論』의 서문에 담고 있다.

다음은 1920년대 선사의 대표적인 저술인 『수심정로(修心正路)』를 보고자 한다. 이는 그의 선사상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1924년에 삼장영회는 『鮮漢文譯禪門撮要』을 출판했는데, 이 책의 부록으로 『수심정로(修心正路)』가 포함되었다. 『禪門撮要』는 한국 및 중국에서 간화선 수행에 필수적인 선어록을 모은 책이다. 백용성은 『禪門撮要』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간화선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편집하고 번역하여 『鮮漢文譯禪門撮要』을 간행하였다.

또한, 『수심정로(修心正路)』는 1930년에 발간된 『각해일륜(覺海日輪)』의 제3권 주제로도 포함되어 있다. 『鮮漢文譯禪門撮要』의 부록으로 소개한 『수심정로(修心正路)』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1930년에 출판된 『각해일륜(覺海日輪)』 제3권에도 『수심정로(修心正路)』가 같은 구성으로 실려 있다. 아래의 <표 5>에서 각 구성 순서의 ()안에 있는 숫자는 『각해일륜(覺海日輪)』에 표시되어 있는 구성 번호이다. 즉 같은 내용임을 보이기 위해서 각각의 책에 있는 번호를

37) 『心造萬有論』,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162.

같이 표시했다.

<표 5> 『鮮漢文譯禪門撮要』 부록 『수심정로(修心正路)』 구성³⁸⁾

제1	시삼마 화두에 대한 병을 간택함(제46)
제2	화두가 좋은 화두가 있다 함을 간택함(제47)
제3	시삼마 화두가 백천 화두에 근본된다 함을 간택함(제48)
제4	무슨 화두마다 本疑心이 있으며 또 병된 것을 가림(제49)
제5	화두를 참구하는 데 제병통을 자세히 밝힘(詳明)(제50)
제6	화두참구하는 모양을 말함(제51)
제7	공부할 때에 불가불 마군이를 알아야 할 것(제52)
제8	마가 도덕을 해롭게 하는 인유를 밝힘(제53)
제9	마가 도를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밝힘(제54)
제10	외도의 괴수된 자만 가림(제55)
제11	색음이 녹아질 때에 열 가지 경계가 나타남(제56)
제12	수음이 녹아지려고 하면 열 가지 마군이가 나는 것을 말함(제57)
제13	상음이 녹아질 때에 열 가지 경계가 나는 것을 말함(제58)
제14	외도의 종류를 밝힘(제59)
제15	행음과 색음이 다 녹지 못하고 그 가운데 앉아 외도됨을 밝힘(제60)
제16	常·無常 외도를 말함(제61)

백용성 선사는 『수심정로(修心正路)』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화두도 좋은 화두와 나쁜 화두로 나눌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화두를 참구할 때는 의정을 크게 일으키고, 의정 이

38) 백용성, 『鮮漢文譯禪門撮要』,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대한불교조계종 대 각회, 2016, pp.135-158.

외에는 다른 생각을 내지 않도록 가르쳤다. 선사는 화두를 참구할 때 생기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화할 때 흔히 겪는 장애들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어떤 경계에 마주하더라도 그 경계가 화두를 참구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로지 강한 의정을 통해 화두를 참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선사는 우리가 마음을 깨우치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정리하면 백용성 선사는 참선 포교를 위해서 만일참선결사회 추진 및 선회 개설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으며 수행자 및 재가 불자들을 위한 참선관련 다수의 서적들을 저술하고 번역하여 발간했다. 이는 참선 포교를 위한 이론 제시 및 선포교 대중화를 위한 선사의 끊임없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1910년대와 1920년대 백용성 선사의 화두 참선 포교 활동을 연구하였다. 1910년대와 1920년대는 백용성 선사가 1911년에 그 당시 수도 경성에 상경한 후 그의 중요한 참선 포교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사에 있어서도 전기를 마련하는 특별한 포교방법을 통한 활동을 하셨다. 대표되는 그의 참선 포교 활동들에는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개설, 대각사 창건, 만일참선결사회 성립과 대각교 부인선회 개설 다수의 禪 관련 저술 활동 등이 있다.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은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에 종속되었다는 조동종 맹약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임제종 운동의 본부였다. 원종은 근대

초기 한국의 첫 불교 종단이었으나, 종정 이회광은 일본이 우리 불교와 민족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조일불교 연합에 동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이 설립되었다. 백용성 선사는 서울에 ‘참선’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알리며 화두 참선 수행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그의 모든 포교 활동은 궁극적인 선리가 마음을 깨우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임제선을 전파하며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지켜 나갔는데 있었다.

이 논문은 또한 백용성의 대각사상, 독립운동, 그리고 대중 포교 활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백용성 선사가 敎外別傳인 참선을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25년 만일참선결사회를 창설했을 때 결사회의 임시사무소로 사용되고 일반인들을 위한 선회를 개설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등 한국 화두 참선 수행 보급 및 장소 등 한국 전통불교의 맥을 살리기 위해 활용된 위대한 성지였던 대각사 창건에 대해 다루었다. 한편 대각사 창건 시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보광스님의 주장을 따라 1916년설을 인정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대각사에서 백용성 선사는 삼장역회를 창설하고,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와 한글 대각교 의식집을 포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일반 대중을 위해 대각교당 선회와 대각교 부인선회를 개설하여 참선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대각사에서 백용성 선사는 일본불교의 침투에 맞서 일제 총독부에 건백서를 두 번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대각교를 선포하기도 했다. 백용성이 추구한 대각교 운동은 당시 선구적인 불교 개혁 운동이었다.

만일참선결사회는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일본불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백용성 선사는 번역 및 저술활동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 결사회를 창설하여 참선을 정밀하게 수행하려고 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미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에서의 활동과 임제파강구소를 운영하며 참선의 중요성을 강

조했던 백용성은 참선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여겼다. 이 결사회를 추진한 또 다른 목적은 한국불교의 계율 파괴와 선의 몰락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왜색불교의 만연과 승려들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백용성 선사는 선과 율을 함께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안하며 마음을 깨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임제선을 전파하며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가려고 했다.

부인선회는 백용성 선사의 참선 대중화 노력에서 독특한 성과로 평가되며, 그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참선 포교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부인선회의 설립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 중심의 참선 수행법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부인선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는 한국불교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결국 여성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인선회는 백용성 선사의 참선 포교활동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성 요소로서 강조되며, 그의 사상과 이념을 실천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백용성 선사는 선에 관련한 다수의 서적을 저술했으며, 이 논문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발간된 네 권의 그의 저술서를 소개하고 있다. 1910년대의 백용성 선사의 저술로는 조선선종중앙포교당에서 1913년에 발간한 『歸源正宗』과 『佛門入教問答』이 있다. 1920년대에는 선사가 1921년에 출판한 『心造萬有論』과 1924년에 출판한 『鮮漢文譯禪門撮要』에 부록으로 실린 『修心正路』가 있다. 이 네 권의 서적에서도 백용성 선사는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식이며 독립운동가, 저술가, 불교 개혁가인 백용성 선사는 근대 한국사회에서 화두 참선 수행법을 소개하며, 이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

리려는데 노력한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백용성 선사가 평생 동안 수행한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 화두 참선의 뛰어난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나아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백용성, 『백용성대중사총서』,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 _____,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 김택근, 『용성 평전』, 모과나무, 2019.
-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총본산 대각사, 『大覺寺』, 2013.
- 白龍城, 『歸源正宗』, 朝鮮禪宗 中央布敎堂, 1913.
- _____, 『佛門入敎問答』, 朝鮮禪宗 中央布敎堂, 1913.
- 박희승, 『이제, 승려의 입성을許함이 어떨는지요』, 들녘, 1999.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이병두 역주, 혜안, 2003.
- 이병현,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2002.
-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_____,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大覺思想』 3, 大覺思想研究, 2000.
- _____, 「백용성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2.
- _____,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大覺思想』 6, 大覺思想研究, 2003.
- _____,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백용성의 대각교」, 『大覺思想』 10, 大覺思想研究院, 2007.
- _____,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립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大覺思想』 20, 覺思想研究院, 2013.
- _____, 「백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정체성」, 『大覺思想』 23, 大覺思想研究院, 2015.
- 김명호, 「임제종(臨濟宗)의 선풍(禪風) 고찰」, 『불교학보』 7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6.
- 김정희, 「백용성의 생애와 불교개혁론」, 『불교평론』 12, 현대불교신문사,

2010, 12.

- 김종인, 「백용성의 근대와의 만남과 불교개혁 운동」, 『大覺思想』 23, 大覺思想研究院, 2015.
- 김호성, 「봉암사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 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 박영만, 「龍城禪師의 教化樣態考察」, 『大覺思想』 25, 大覺思想研究院, 2016.
- 조승미,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 운동과 부인선원」, 『大覺思想』 27, 大覺思想研究院, 2017
-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대중포교활동」, 『大覺思想』 6, 大覺思想研究院, 2006.
- _____, 「백용성선사의 불교개혁론」, 『회당학보』 2, 회당학회, 1993.
- _____,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 大覺思想研究院, 1999.
- _____, 「백용성 스님의 대중포교활동」, 『大覺思想』 6, 大覺思想研究院, 2003.
- 허정선, 「백용성과 대각사 연구」, 『대각사상』 34, 대각사상연구원, 2020.
- 박용모, 『白龍城의 佛教實踐運動研究』, 동국대학교 박사 논문, 2014.
- 허정선,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2.
- 「開教式場」, 『朝鮮佛教月報』, 1912년 5월 26일.
- 「中央布教堂開教式」, 『매일신보』 5호, 1912년 6월
- 「禪宗臨濟派講究所」, 『每日申報』 1915년 5월 14일.
- 「吾宗은 臨濟禪宗」, 『매일신보』 1915년 7월 7일.
- 「佛教消息 ; 活句參禪會의 移轉」, 『佛教』 23, 佛教社, 1926년 5월.
- 「조선불교계의 선원과 남자수의 통계」, 『禪苑』 3, 1932년 8월.
- 釋大隱, 「故白龍城大禪師의 追慕」, 『佛教時報』 59, 1940년 6월.
- 「용성스님이 부인선방 지도하던 대중 포교도량, 무주 향산사」, 『불교저널』 33,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Chamseon Proselytization of Ven. Yongseong Baek
– Focusing on the 1910s to 1920s –

Her, Jung-sun
(Ph.D. Dept. Seon Studies of Dongguk Univ.)

This research represents a systematic exploration of Baek Yongsung's Hwadu chamseon practice and proselytizing undertakings throughout the 1910s and 1920s. This temporal frame corresponds to a pivotal phase in Baek Yongsung's proselytizing pursuits, particularly following his relocation to Gyeongseong (present-day Seoul). His noteworthy endeavors during this period encompa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Imjejong Central Proselytizing Hall, the construction of the Daegaksa Temple, the inception of the Manil Chamseon Society, the inauguration of the Daegaksa Buddhist Women's Chamseon Society, and a prolific engagement in various writings related to Seon. Baek Yongsung's proselytizing activities were fundamentally centered on the dissemination of the Imje Seon principles, emphasizing the cultivation of the mind, thereby perpetuat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Imjejong Proselytizing Hall can be understood as a response to the backlash against the humiliating pact between Korean Buddhism and Sotozen, driven by efforts to preserv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Korean Buddhism. While Wonjong marked the early modern era's first Korean Buddhist Order, its leader, Yi Hoe-gwang, unwittingly aligned with Japan's intentions to undermine both Korean Buddhism and national identi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Korea–Japan Buddhist Union. In this context, the Chosun Imjejong Proselytizing Hall was established, and within this transformative milieu, The great master introduced the concept of 'Hwadu chamseon' for the first time in Gyeongseong, extensively promoting the practice of Hwadu chamseon as part of his proselytizing endeavors.

This paper further explores the pivotal role of Daegaksa Temple in Baek Yong–sung's ideology, his quest for independence, and his endeavors in proselytizing activities. Daegaksa Temple not only served as the central hub for these aspects but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Notably, in 1925, when Baek Yongsung established the Manil Chamseon Society, Daegaksa Temple was utilized as the society's temporary headquarters, and it was also opened as a place for laypersons to engage in Hwadu chamseon practice. This exemplifies its vital role in proselytizing Hwadu chamseon practice and sustaining the spiritual heritage of Korean Buddhism.

The Manil Chamseon Society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emphasizing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Korean Buddhism and revitalizing its traditional values through the practice of Hwadu chamseon, thereby distinguishing it from Japanese Buddhism. Another primary impetus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is society stemmed from concerns regarding the erosion of vinaya discipline and the decline of ethical standards within Korean Buddhism. Consequently, Ven. Baek introduced a distinctive approach, integrating Hwadu chamseon and ethical precepts, while disseminating Imje Seon, which placed a profound emphasis on the awakening of the mind, all in a concerted effort to preserve the heritage of Korean Buddhism.

The formation of the Daegaksa Buddhist Women's Chamseon Society (Buin Seonhwe) is lauded as an innovative and creative accomplishment within Ven. Baek Yongsung's efforts to popularize

Hwadu chamseon practice. It is considered a pivotal constituent of his proselytizing initiatives. The creation of the Women's Chamseon Society expanded the scope of women's involvement in a Confucian-oriented society, enhancing their rights and affording them access to the male-centric practice of Seon, thereby alleviating gender-based disparities. The Women's Chamseon Society is underscored as a crucial and meaningful facet of The Great master's proselytizing work, representing the embodiment of his philosophical principles and ideals in practical realization.

Ven. Yongsung Baek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realm of Seon literature, penning a considerable body of work related to Seon practice. This paper elucidates four of his publications dating from the 1910s and 1920s, namely 『歸源正宗』, 『佛門入教問答』, 『心造萬有論』, and 『鮮漢文譯禪門撮要』 accompanied by an appendix titled 『修心正路』. Within the content of these four volumes, the Great master consistently underscores the paramount significance of self-realization, emphasizing the need for individuals to awaken to their innate nature.

Ven. Yongsung Baek, a great seon master, a stalwart independence activist, accomplished author, and a catalyst for Buddhist reform, devot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life to acquainting the broad spectrum of the general populace in modern Korean society with the practice of Hwadu chamseon practice. His endeavors were firmly rooted in the aspiration to proselytize and seamlessly integrate Buddhism into the fabric of everyday life. Through the conduits of this research, we aspire to illuminate the remarkable attributes of our indigenous practice, Hwadu chamseon practice, a pursuit that Baek Yongsung ardently embraced throughout his lifetime and endeavored to acquaint a wider audience with, thereby affording a unique opportunity for its wider dissemination and recognition.

Key words

Ven. Yongseong Baek, Hwadu chamseon, Imjejong Central Proselytizing Hall, Daegaksa Temple, Manil Chamseon Society, Daegaksa Buddhist Women's Chamseon Society, Writing activities

논문투고일 : '23. 10. 7. 심사완료일 : '23. 11. 22. 게재확정일 : '23. 11. 22.